

심판(審判)

요한계시록 20 : 11; 15, 유다서 1 : 15

이 명 직 목사(1896. 12. 2~73. 3. 30)는 한국성결교회 사부님으로 존경받으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 본 란을 통하여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들어본다.

심 판이라 함은 모든 일과 행위의 마지막에 임하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참과 거짓, 간사함을 심사(審査) 판단하고 비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심판이 없을 수가 없으며 결국에는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컨대 1년을 두고 생각 할지라도 봄에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하여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심판의 표징(標徵)입니다.

또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심판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 : 27)라 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심판받는 것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심판은 군왕도 장군도 그 누구도 면할 수 없습니다. 귀하거나 천하거나,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상관 없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평하신 정치요 정의의 심판입니다.

어떤이는 심판을 장래의 형벌의 의미로만 해석하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고린도후서 5 : 10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아야 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시간을 아껴서 면학(勉學)하면 그 결과로 시험 때에 우수한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반대로 게을러서 면학하지 않고 시간을 허송했다면 시험하는 날에 그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두려운 형벌이 되겠지만, 의인에게는 보상을 받는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온 세계가 자기에게 대하여 논단(論斷)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고전 4 : 5).

심판이 없다면 우열(優劣)의 표준도, 승패(勝敗)의 결과도, 생애의 희망도, 인생의 의미와 보람도 없이 인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장래와 인연(因緣) 깊은 시련의 도장(道場)입니다. 우리가 장래의 심판 곧 보응(報應)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세상에서의 일체의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됨으로 행위를 책임지고 삼가 조심하며 살

심판을 받을 것이 명백합니다.

사람이 어리석고, 죄로 눈이 어두워지고 정욕으로 마음이 캄캄하여 자기의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판단 없이 지내는 것이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행위

첫째는,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행동”(유 1 : 15)입니다. 마태복음 25 : 31이하에 보면, 심판의 기준이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한 사람은 물론 영생의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법한 행동으로 살인이나 구타한 일은 없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자기의 직분을

만일 우리가 한 말이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억울하게 한다면 그 말은 영원히 그 사람의 기억에 입력되어 있다가 심판날에 증거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다 하지 못했다면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장차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 보인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것이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나 기억치 못한 것 등 하나님의 기록 책에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빠짐 없이 기록되어(제 20 : 12) 있어서 마치 영사기(映寫機)로 촬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둔 것을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2. 언어

둘째는 “경건치 않은 죄인의 강박한 언어”(유 1 : 15)입니다. 말은 하기도 어렵고 아니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여야 합니다. 혹 한번 쓴 활의 살을 다시 거꾸어 들일 수 있다 하여도 사람의 말

은, 한번 입을 떠나면 다시는 거꾸어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혀로 범죄함을 면하고,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때에 내 입에 자갈 먹이겠노라”(시 39 : 1)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말에 조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말을 하면 그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 말이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억울하게 한다면 그 말은 영원히 그 사람의 기억에 입력되어 있다가 심판날에 증거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결코 작은 것 하나라도 사라지지 않고 보존됨이 명백한 것을 요사이 과학이 증명해 줍니다. 통신의 발달로 한국에서 말하는 것을 멀리 미국에서 앉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비망록에 기록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어리석은 자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리라”(마 5 : 21)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축음기(녹음기)에 사람의 말을 입력시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의 평생의 일기(日記)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대로 틀림 없이 녹음된 소리가 나오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매일 매일 하는 많은 말들이 그대로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음기에 입력되므로 심판날에는 이를 듣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말과 허탄한 말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순결하고 정직한 말을 하여야 합니다.

3. 마음

셋째는 “경건치 아니 한 마음”(유 1: 15)입니다. 국가에서 세운 법률은 범죄의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는 정죄할 수가 없지마는 하나님의 법은 치밀하여서 깊이 숨어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가령 사람이 도적질을 하지 아니 하였을 지라도, 드러나게 간음하지 않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고자 했던 마음과 여인을 향한 불결한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증거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렘 17: 9-10)라 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네가 장차 이스라엘을 쳐서 많은 악을 행하고 그 뿐만 아니라 네 임금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되리라 할 때에 하사엘은 부인하고 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일이 없으니 어찌 감히 그러한 일을 행하리요”(왕하 8: 7-15) 하였습니다. 그후 하사엘은 엘리사의 예언한 대로 행하였으니 그의 마음을 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의 평생의 일기(日記)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물 가운데 돌을 던지면 파문(波紋)이 점점 사방으로 퍼져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보좌보다 먼저 은혜의 보좌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히 4:16).

가다가 언덕에 부딪쳐 다시 돌아서 원 위치로 되돌아오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은 심판대 앞에 이르러야 합니다. 지금은 숨길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는 “각 사람이 다 자기의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 하리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12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앞에서 직고 하리라” (벧전 4:5)고 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사람의 양심의 기억이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선악에 대한 보응과 평생에 지은 죄악의

기억만 남아 있게 될터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이 심판대 앞은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거나 용서받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또 이곳은 마지막 판결하는 곳으로 낙원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곳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보좌보다 먼저 은혜의 보좌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히 4:16). 심판의 보좌를 보고 두려워 떨던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지성소 내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는데 이 속죄소에는 피가 마르지 않고 늘 고여 있었습니다. 이 피는 곧 속죄의 피입니다. 이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죄짐을 짊어진 사람, 구원의 길이 없어 애통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은혜의 보좌에 고여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은 곧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본고는, 이명직목사의 설교집 제1권에 수록된 것을 본지의 발행인 홍순균목사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정리하여 옮긴 것이다)